

건설인력점검

건설 경기가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은 서로 상반되는 수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 및 관리직을 포괄하는 기술 인력의 경우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반면, 조적공이나 미장공 등 직접적 생산자인 기능 인력의 경우 과소 공급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능 인력의 부족 문제가 건설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기능 인력 공급의 문제점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숙련 기능 인력 태부족, 현장에서는 新 3重苦 ' 몸살

- 기술 · 관리 인력은 초과 공급, 젊은 층 이탈로 기능공 평균 연령 48 세 -

최근 건설 기능 인력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비상 사태'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상승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주한 공사를 반납하는가 하면, 목공이나 미장공 등 숙련공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들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인식되고 있다. 가까스로 구한 인력도 50대 또는 60대가 대부분이어서 일도 더디고 산재 발생이 우려된다. 이미 '쓸 만한' 인력 즉, 젊은 숙련공이 사라진 지는 오래다. 십장의 작업팀은 비숙련공 중심으로 재편되어 그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은 낮아지고 공기는 뒤쳐지며 임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품질 저하, 공기 차질, 채산성 악화의 3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숙련공 부족... 新 3重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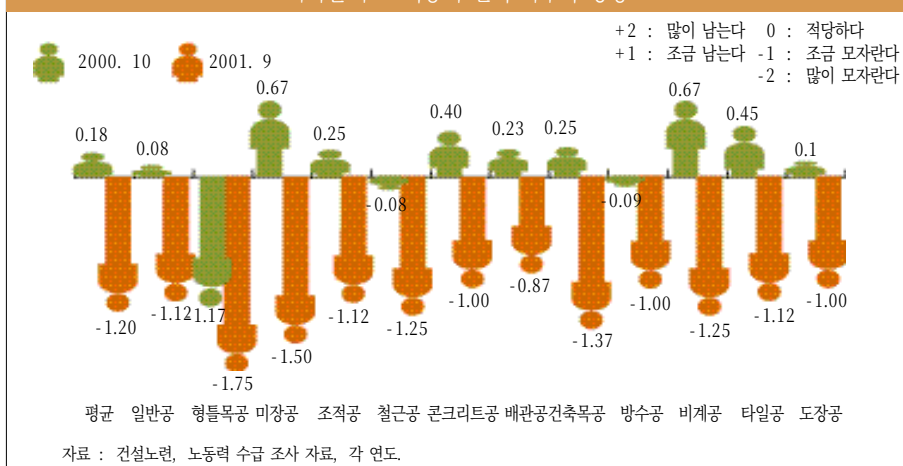
얼마 전 실시된 건설노련의 지역 조사를

통해 전년도 10월과 올 9월의 노동력 수급 상황을 비교해보면 전체 기능 인력의 약 75%를 차지하는 12개 직종 모두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2000년 10월에 8만 300원이던 평균 일일 임금(일당)이 2001년 9월에는 약 7.5% 상승한 8만 6,323원으로 나타났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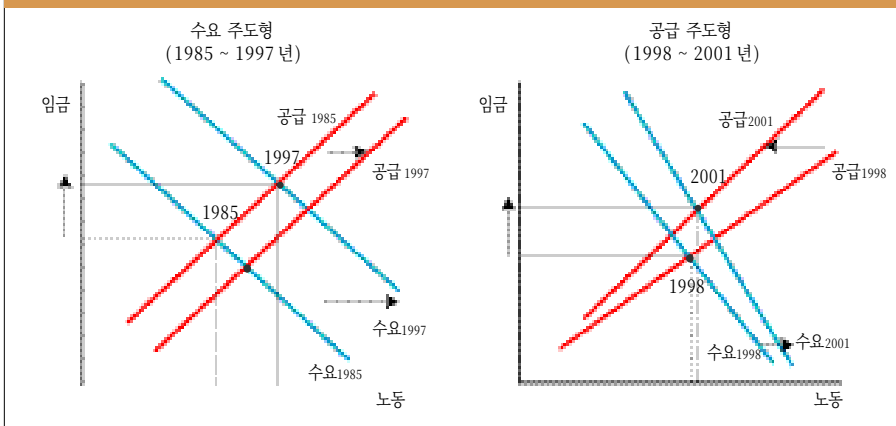
현재 숙련공 임금의 상승세가 이어져 12만 15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을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된 「주차장법」 강화에 따른 일시적인 건축 붐 즉, 수요측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현재의 상황을 측

시기별 주요 직종의 인력 과부족 상황



건설 기능 인력의 임금 상승 유형



발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해석이다.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임금 상승으로 보일지라도 그 원인이 수요측 요인에 있는지, 또는 공급측 요인에 있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설 인력 수요의 주된 결정 요인인 건설 투자의 증가로 촉발된 임금 상승은 ‘수요 주도형 임금 상승’으로, 반대로 노동력의 공급 감소로 촉발된 임금 상승을 ‘공급 주도형 임금 상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 요인에서 촉발, 막대한 피해 우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건설 투자 증대에 의한 노동력 수요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외환 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건설 투자가 약 87조원이었던 1996년에 비해 2001년의 건설 투자는 약 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그 회복도는 약 83%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지역 조사에 나타난 주요 직종의 임금은 이미 1996년 임금 수준의 116%에 육박하였고 11월 말 현재 120%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의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현상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주인이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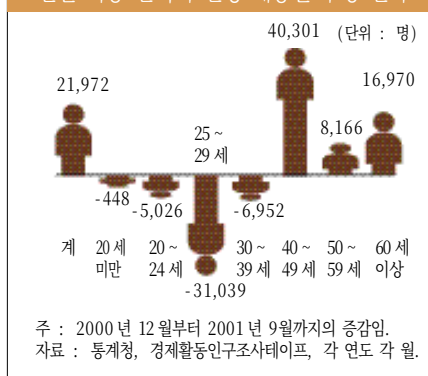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력 수요 증가에 의해 인력 부족 및 임금 상승이 촉발될 경

우 수요 감소에 의해 일시적 인력난 및 임금 급등이 진정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령화 및 인력 공급 감소에 의해 인력 부족 및 임금 상승이 촉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숙련도 저하로 생산성이 하락,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채산성이 악화되고 공기에 차질을 빚게 된다. 나아가 노동력 풀을 고갈시켜 결국 생산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고 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게 된다. 건설산업 전체가 이러한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거나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비상 사태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젊은 층 이탈, 평균 연령 48세

공급 주도형 임금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전한 노동력 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건설 기능 인력의 연령 계층별 구성 변화



것으로 보인다. 건설 현장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이들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것은 밤새워 벽돌을 찍어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보 기능공이 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년이며 A급 기능공이 되기까지는 약 8~9년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력 풀이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보다 심각한 것은 건설 노동력 풀에 있던 젊은 층마저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업 종사자 중 건설 기능 인력에 해당하는 3개 직종을 추출하여 이들의 연령 계층별 구성을 살펴보았다. 2001년 9월 현재 건설 기능 인력은 약 124만명으로 2000년 12월에 비해 약 2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연령 계층별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는 감소하고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만 증가함으로 고령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2001년 9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인 데 비해 건설 기능 인력의 경우 그 절반 수준인 9.9%에 그치고 있다.

9월 지역 조사에 의하면 건설 기능 인력의 평균 연령은 이미 47.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들어 임금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왔으나 지금까지의 임금 상승만으로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는 역부족인 듯하다. 건설 생산 과정의 특성상 기계화 및 자동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한다고 해도 숙련공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한 어제의 천대와 무관심이 마침내 오늘의 고령화와 내일의 노동력 풀 고갈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gbshim@cerik.er.kr